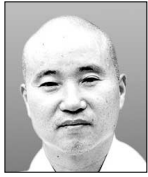


일주문



국제 청소년 광장 개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8월 18~25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지구환경발전과 청소년의 실천방안'을 주제로 15회 국제청소년 광장을 개최했다.



선과 삼론학의 불성관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8월 28일 서울 법문사에서 '선과 삼론학의 불성관'을 주제로 월례 발표회를 연다. (02)733-5311



구름 뒤 파란 하늘 출판기념회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은 8월 26일 오후 1시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구름 뒤 파란 하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51)851-5486



성남 사회복지관협의회에 취임
성남 분당 한솔종합복지관장 성화 스님은 8월 17일 성남시 4개 복지관협의회인 성남사회복지관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창립 7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9월 4~5일 제주도 서귀포시 약천사에서 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5-1108



티베트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8월 15~22일 제3차 해외성지 순례를 포탈라카, 라사 등 티베트 일대로 다녀왔다.



3회 한일 불교문화교류 공연
서울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8월 19~21일 일본 양원사에서 열리는 '제3회 한·일 불교문화교류 공연' 참석차 18일 출국했다.

인사

진각종 △대구 시경심인당 주교 경당 △익산 관행심인당 주교 도진 △청도 본원심인당 주교 현경
불교방송 △경영기획실장 김정택 △총무국장 구기범 △방송제작국 편성제작부장 이윤진 △보도부장 직무대리 남선 △기술부장 백낙찬 △총무국 총무부장 최찬기 △방송제작국 해설위원 신상진 △편성제작부 편성팀장 김학주 △포교제작팀장 김상준 △교양제작팀장 장대승 △방송제작국 아나운서팀장 이선희 △보도부 정치경제팀장 김보조 △사회문화팀장 박관우 △기술부 기술관리팀장 강영규 △제작총괄팀장 정재의

이전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이 공주시 사곡면 신영 3리로 이전하고 명칭도 '공주 지원'으로 바꾸었다. (041)852-9100

“불교학의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할 터”

아·태 교수불자연합회 초대 회장 연기영 교수

“이제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 연합회가 창립됐습니다. 이를 모태로 세계의 지식인 불자가 하나 되는 명실상부한 국제 교수불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8월 18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연합회 창립대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연기영 동국대 교수(사진). 그토록 꿈꿔오던 국제교수불자 네트워크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기쁨에 상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창립대회는 17일부터 같은 곳에서 열린 제1회 세계교수불자 대회에 참가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불자교수들과 한국교수불자

연합회(회장 연기영) 회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연 교수는 “지식인은 사회 변화의 정신적 지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불교사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연합회가 중심이 돼 인류평화의 이룬·실천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연 교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이후 16년이 지나는 동안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렇다고 지식인 불자들의 실천적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종단과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교불련이 아태교수불자연합회 창립을 주



도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태교수불자연합회는 앞으로 아시아와 미국, 호주 등 해외 15개국에서 6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담사 만해마을=박익순 기자

간화선과 심리상담 접목 ‘특효’

‘선수행에 의한...’ 논문 낸 김말환 법사

“군승제도가 생긴 지 3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불교적 상담법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여에 걸쳐 선수행을 활용한 인성검사 프로그램을 장병 선도에 적용해 본 결과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됐고, 이를 논문으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선 심리상담법을 연구해 온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대령·사)이 25년간 군승으로 근무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라는 논문을 펴냈다. 서구식 상담법을 활용하고 있는 군포교 현장에서 불교적 상담법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1999년 동국대 일반대학원 석학 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 실장은 “그동안 선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은 높으면서도 학문적 체계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며 “간화선을 현대의 심리학적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논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경증 치료 효과가 있는데서 착안했다. 특히 내담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신뢰 속에서 범인을 토로하도록 이끌어내고 스스로 주어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잡아함경> <금강경> <능가경> <안반수외경>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현재 국방부에서 대국민 종교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말환 군종실장은 “구체적인 장병들과의 고충사태와 해결과정을 논문에도 포함시켜 선심리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사례를 별도의 책으로 묶어 군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상제 정사·나선환 씨 신계륜·박계동 의원

진각복지재단 신임 이사에 선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신임이사에 상제 정사(진각종 경주교구청장), 나선환 탐주심인당 신교도(우리은행), 신계륜 의원, 박계동 의원이 선임됐다.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효암은 8월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혜정 정사(교육원장)와 손성설·조성준·김용근 이사의 후임으로 이들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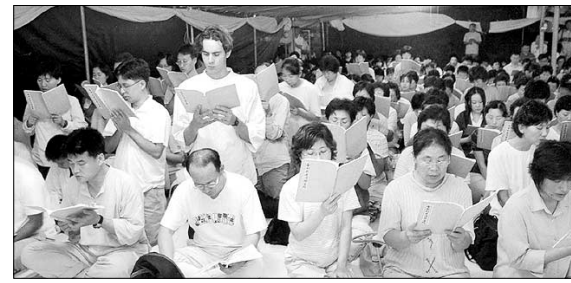
임했다. 혜인 정사와 혜명 정사는 재선임됐다. 이사회는 또 산하시설인 인천 덕화노인요양원 원장에 김영란 씨, 나리어린이집 원장에 남경희 씨, 삼암어린이집 원장에 장명희 씨, 신내어린이집 원장에 김선옥 씨를 각각 임명했다. 박봉영 기자

문광부 종무실장 이보경·종무관 신용언 씨

신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에 이보경(사진 위) 전 문화산업국장이, 종무관에 신용언 전 관광정책과장이 8월 19일자로 임명됐다. 이 실장은 서울대에서 영어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어문출판국 출판자료과장,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신 종무관은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청소년교류과장, 출판신문과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금강경독송회 경주서 통합 철야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용)는 8월 14~15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주 두대 도량에서 통합 철야법회를 봉행했다. 불우이웃과 결식아동을 위한 성금모금 행사를 가진 이날 김재용 법사는 “일상속에서 수행을 늘 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봉원사 연꽃축제 16일 개막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인평은 8월 16일 경내에서 제2회 서울연꽃축제를 개막했다. 문화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문화재청, 태고종 총무원 등이 후원하고 봉원사와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연꽃축제는 8월 30일까지 열린다.

한상린 씨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부처님오신날 봉축캐릭터를 개발한 한상린 씨(사진)가 제7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지역예선을 거쳐 출품된 942종 7661점에 대해 창작 아이디어 분야와 일반상품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벌인 결과, 한 씨의 출품작 ‘한국의 전통인형과 실용소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의 전통인형과 실용소품’은 왕, 군무(群舞) 등의 전통인형을 아름다운 색채로 섬세하게 표현해 상품성, 디자인, 전통미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상린 씨는 “가치가 높은 우리의 문화를 한국적인 이미지를 살린 작품으로 만들어 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입주지절에 신도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 충만하시길 부처님전에 합장 기원 드립니다. 소송의 부친 호산 서남수 큰스님께서 입적하신 이후 소인의 잘못으로 인해 천년 고찰 봉서사가 법단에 휘말리게 하고 신도 불자님들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백배사죄하며, 정진과 기도에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봉서사는 천년고찰을 이어온 전통사찰이며, 옛날 옛적부터 대저승 승려의 계열로 사찰이고, 사자상승(계승) 이어 온 ‘태고보우 국사’의 증조를 받들어 온 ‘태고종 종찰’이라는 것을 이번에 사건의 계기로 소송은 확실히 알았으며, 아버지(호산스님)께서 신도 불자님 함께 손통, 발통의 온 몸으로 40년 동안 불필요한 봉서사 불사를 하는데 평생을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봉서사 신도 불자님의 커다란 뜻을 소송의 마음의 혼란으로 잠시 자식이라는 좁은 소견과 탐·진·치 삼독으로 본성을 가려서 빛어진 육신에 잘못된 인정하고 소송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심정으로 “한국 불교태고종 봉서사” 현주지 김욱제(월해)스님에게 모든 집유·운영·소유 및 명도를 넘겨 드리고, 소송은 태고종 승려로서 백의 종군하고 참회(반성) 마음으로 돌아가 조용한 산사에서 공부를 하며, 기도에 열중할 것을 봉서사 신도 불자님께 말씀드리며, 저희 아버님이신 서남수(호산)큰스님을 평소 애종경하고 따르신 신도님께 바라옵건데, 태고종 봉서사 현주지 김욱제(월해)스님을 모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광복스님은 조계종의 승려지만 봉서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김복호(광복)스님이 잠시 관음전에 객승으로 온 것이지, 신도 불자님께서 적극 적으로 김욱제(월해)스님을 도와 주시는 것이 돌아가신 호산 큰스님을 돕는 거라고 소송(법원)은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소송(법원)이 신도 불자님 가정에 방문하여 말씀을 올려야 도리인데, 찾아뵙지 못하는 소송을 이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서사를 사랑하는 신도 불자님 그 동안 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모든 신도님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소송은 봉서사를 떠나서 열심히 부처님 공부 하겠습니다.

신도 불자님께 소송이 간청하오니 김욱제(월해)스님을 도와 주시고 봉서사가 “태고종 종단”의 최고의 사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불사에 협력하리라 믿고 소송은 이만 줄입니다. 봉서사 신도 불자님! 부처님 자비광명과 항상 가정과 행복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4년 8월 13일 봉서사 서영준(법원) 올림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봉서사 신도님들께 드리는 글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백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령,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처방요령, 침술주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종합침술
▶ 개강: 2004. 9. 1 (주·아간반: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어,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수시

사암침술 학회

장소: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011-307-2975, 02)2267-9136